사 설

봉원사 훼손 안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긍정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적 발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를 했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지자체는 소아적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가 상수원을 오손하는 사업을 추진해 말썽을 일으켰던 일이 적지 않았다. 경우는 다르지만 최근 서대문구청이 서울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신촌 봉원사 경내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서대문구가 추진중인 독립공원 성역화사업과 연계한 안산순환도로 건설은 봉원사경내지 7필지를 강제수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찰측과 변변한 상의 한번없이 계획을 수립한 뒤 봉원사측에 사찰토지의 강제수용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일방적 토지수용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우선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전통사찰의 토지를 수용하려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계장관은 이를 해당종단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만약 이곳에 순환도로가 건설될 경우 자동차 소음공해가 생겨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이 파괴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서대문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경내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삼보정재의 유실과 사찰환경의 파괴로 인해 불교의 종교활동은 심대하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봉원사측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이번 사건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이라는 미명아래 사찰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그동안 불교계는 이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사찰경내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사례가 속출하자 불교계는 국회와 관계기관에 청원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실로 97년 가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서대문구의 경우에서 보듯이 법조항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데도 사찰측과 상의없이 토지수용을 강행하려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초법적 행정만능주의가 활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사찰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절들이 환경과괴로 훼손돼간 뼈저린 경험을 기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떤 경우라도 초법적인 토지수용은 있을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전통사찰의 존엄과 수행환경의 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봉원사는 전통사찰 중에서도 무형문화재 제48호인 단청과 제50호인 영산재를 보존 전수하는 사찰이다. 이곳에는 매년 수많은 불자들과 외국인들이 단청과 영산재를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이런 사찰은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수행환경을 보존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훼손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서대문구가 조금이라도 상식을 존중하는 자치단체라면 하루속히 사찰경내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 또는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봉원사 경내 '도로통과' 물의

서대문구청 허가절차 무시 추진
"수행환경 훼손-정재망실 등 우려"

서대문구청(구청장 이정규)이 안산(봉원사 뒷산)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해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신촌 봉원사 경내지를 관통하는 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산 순환도로는 구청을 출발해 한성과학고-금화시민아파트-북아현동-금화터널 상단-봉원사, 다시 구청으로 이어지는 총 7km의 왕복 2차선 도로.

봉원사 구간은 대웅전에서 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태고프라자 주차장을 관통하고 있으며 경내지 1141평 430m도 수용된다. 이와관련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12월 8일 1차적으로 402평 120m 구간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 통보를 봉원사에 보내 온 상태이다.

전통사찰 봉원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많은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경내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찰측과 충분한 사전 논의는 물론 사찰측의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로건설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봉원사 관할 관청이면서도 봉원사가 전통사찰보존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는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또 봉원사가 선암사, 향림사, 백련사와 더불어 문화관광부 특별지정 관리사찰인 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도로 건설계획 추진에 앞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서대문구청이 수행도량에 대한 불교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목적과 개발이익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종단과 협의해 범불교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원사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은 20일 총무원 사회부 산하 사찰환경보존위원회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정화회의 월하종정 재추대

정화개혁회의는 19일 구룡사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월하스님의 종정 재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새 원로의원에 도원, 도성, 도봉, 지원스님을 선출했다. 정화회의는 의장에 도성스님(부산 태종사 조실, 전 대흥사 주지)을 선출했다.

정화회의 의원 111명중 6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정 추대 및 원로의원 선출에 앞서 종헌을 개정해 '종정은 정화회의에서 추대한다' '원로의원은 정화회의에서 선출한다'고 했다.

정화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부원장과 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부원장 상덕(안양 용화사 주지) △총무부장 대우(전 선운사 주지) △재무부장 명도각(중흥사 주지) △사회부장 법철 △문화부장 현대 △호법부장 덕륜스님. 포교원장 지원, 교육원장 혜인스님은 유임됐다.

한편 정화회의 부의장 현수스님은 20일 "62년부터 98년 10월 사이에 징계받았으나 승려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자 화장찬성률 타종교인보다 적다

서울시 500명대상 설문

화장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불교 신자들의 화장찬성률(60.2%)이 천주교(81.4%), 개신교(66.9%)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20세 이상 서울시민 500명 가운데 불교 신자들이 화장문화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이 개신교 33.8%인 반면 불교는 69%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여성에 비해 남성이, 20대 계층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장자의 경우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화장에 대해서는 66.8%가 찬성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30.4%만이 찬성한다고 밝혀 실질적으로는 화장을 선호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예의 때문에 화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을 하는 경우 유골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는 의견(34.8%)과 납골당 안치 희망(33.9%), 그리고 납골묘 안치 희망(31.9%)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94년 산골희망자(59.9%), 납골장 안치 희망(11.1%)의 조사 결과에 비해 점차적으로 산골 희망자보다 납골당이나 납골묘 이용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필선 기자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확대

조계종 '포교사제도 개선안'

전문기관장에 추천권 부여 교양대 안나와도 응시 가능 품수전 수습제 도입키로

불교대학 수료생으로 제한된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이 확대되고 자격품수 전 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포교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21일 '포교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월초 열리는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와 포교원의 심의, 포교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시자격 확대이 확대된다. 조계종복지재단 등 포교원이 인정하는 각급 전문기관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자격 품수 전에 소정의 수습기간을 도입한다. 이에따라 불교교양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년 2회 강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포교사 연수도 크게 바뀐다. 사찰에서 3~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수행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포교사팀에 참가하지 않거나 의무 수련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갱신 기간은 현행 3년을 유지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생긴다

3월초 발대…종회의원 활동분석등 전개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재가불자들의 적극적인 종단참여를 위한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발족' 준비활동에 착수했다.

재가연대는 2월 중순까지 종회발전 재가봉사단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회발전 재가봉사단을 모집해 3월 초 정식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가연대는 3월 결산종회에서부터 종회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 법안심사, 중앙종무기관 감사, 예결산심사 모니터링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가연대 소속 정웅정씨 등 5명은 21일~26일 열린 제138회 중앙종회를 참관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조계종 종헌종법특위

소위원회 구성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20일 오전 제2차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는 중원(관음사주지) 진허(마곡사주지) 보선(대둔사주지)스님과 종회의원 종하, 정휴, 학담, 현응, 법안, 운달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만성스님이 선임됐다. 특위는 활동시한을 올 6월말까지로 정했다.

임연태 기자

'재가보살포살본' 발행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

재가불자 대상의 포살법회 차제(순서)와 진행 방법을 규정한 '재가보살포살본'이 발행됐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은 25일 '재가보살포살본' 3천부를 발행해 '법회와 설법' 구독자를 비롯해 일선 사찰에 배포키로 했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포살본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은 "그동안 재가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식 위주의 교리강습이었다"며 "성찰적 참회수행법을 통해 재가불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행을 검증하게끔 하는 데 발행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교입문' '불교교리'로 교육받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재가포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포교원의 신도교육 체계화 구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책의 발간으로 재가불자 포살법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철저한 진상규명을

19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東邦佛教大學

(우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02)763-0229, 763-8536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2년제)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2) 범 패 과 : 00명
3) 불교미술과 : 00명
나. 교양과정(1년제) : 00명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다)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교양 과정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교양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18일(月) ~ 2월 20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일요일은 15:00까지, 공휴일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9년 2월 21일(日) 10:00 ~ 17:00

6. 전형장소: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교양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재직증명서 1부

9.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10.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교양과정은 매주 2~3일 사이에 5강좌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다.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라.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처(☎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5~6)